

# “연구자는 학문에 거짓이 없어야...”

글\_ 박방주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① KIST장으로 거행된 영결식  
② 최형섭연구동 준공식(2000. 5. 24)

2004년 6월 2일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는 한국 과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 최형섭 박사가 안장됐다.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숫자로는 75 번째이며, 과학기술인으로는 고(故) 이태규 박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최 박사의 유해가 영결식장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돌아 장지로 간 길은 그의 인생 행로 그 자체나 다름 없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들이자 연구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 등은 최 박사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최 박사가 떠나는 길 양편에 도열한 과학자들은 그의 높은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듯 숙연하기까지 했다.

### 과학기술인의 사표이자 위대한 과학기술 행정가

최 박사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발전이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인 과학기술의 초석을 다진 과학기술계의 거목이었으며, 과학기술인의 사표였다. 또 위대한 과학기술 행

정가였다. KIST 최형섭 박사 기념관에는 최 박사가 걸어온 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남겨져 있다. 평소 강조하던 연구자의 덕목이다. 그 연구자는 한국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몸소 실천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최 박사가 최장수 과기처장관(7년 6개월)으로서,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장으로서, KIST 소장으로서 행정가였을 때는 다음의 덕목 중 ‘연구자’를 ‘행정가’로 바꾸면 곧 그가 그 직책에 있으면서 숭선수범한 것들이다. 그 덕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는 부귀영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 연구자는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직책에 충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시간에 초연한 생활 연구인이 되어야 한다.
- 연구자는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 연구자는 학문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최형섭 박사는 192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대전 공립학교와 일본 와세다대 채광야금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노터 데임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야금학으로 석사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야금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조국에 돌아온 최 박사의 삶은 과학기술을 일구는 데 바쳐졌다.





국산자동차 부사장, 상공부 광무국장, 한국원자연구소 소장, KIST 초대 소장, 과기처 장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원(KAIST 전신) 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등이 그가 맡은 주요 직책이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계를 거의 다 맡아본 것이다.

최 박사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KIST의 모습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거나 사라졌을지도 모르며, 대덕 연구단지도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국 산업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원자력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 첫발을 한 것도 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당시 기술적인 문제를 은퇴 일본 기술자를 초빙해 상당부분을 해결한 것도 최 박사가 맡았던 일이다. 과학기술과 중공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 그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했던 것이다.

### 재미 과학자 대거 영입, KIST 발전의 틀 짜

1965년 5월 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존슨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으로 갔다. 박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월남 파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싶어 당시 대통령 과학고문인 도널드 호니그 박사에게 물었다. 호니그 박사는 한국에 공과대학을 설립해주자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들은 박 대통령은 간곡하게 공업기술연구소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KIST였다. 박 대통령은 설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최 박사에게 맡겼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이공계 연구소라고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밖에 없었다. 최 박사는 그 당시 원자력연구소장으로 있었다.



- ① 빈소를 찾아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영전에 올리는 허성관 행정부 장관
- ②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는 유족과 외빈
- ③ 대전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모역으로 모셔지는 고인의 운구
- ④ “故 최형섭 박  
님, 평안히 잠드소서”

최 박사의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통찰력, 과학 행정가로서의 지도력은 아무도 만지지 않은 KIST라는 커다란 돌 덩어리를 한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한 이공계 대표적인 연구소로 조각해 놓았다. 미국은 수많은 저개발 국가에 연구소나 대학을 세워줬지만 유일하게 KIST만 성공



- ① KIST 초대소장 임명장을 수여받는 최형섭 박사 (66. 2. 3)
- ② KIST준공식 후 준공 현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최형섭 박사(69. 10. 23)
- ③ 미국 험프리 부통령 KIST 방문 (69. 10. 30)
- ④ KIST 기공식 기념 시(66. 2)

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 박사가 KIST를 맡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그 시대를 같이한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당시 최 박사에게 의해 KIST로 온 재미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 물론 한국에서는 서울대 교수 월급의 3배에 해당하긴 했지만 절대 액수는 적었다. 그런 월급으로도 우수한 재미 교포 과학자들이 KIST로 몰려 들어 온 것이다. 미국에서 잘나가는 교포 과학자를 빼내와 자국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도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한국에 몇 개월 체류하면서 그 성공의 비결을 학위 논문으로 써 내기도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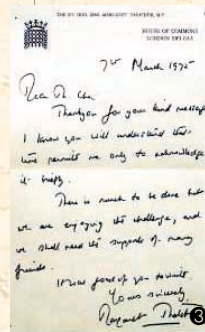
최 박사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학자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애국심을 자극해 그같은 유치가 가능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월급이 많은 사람이 수도룩 했다. 당시에는 밤 12시가 넘으면 통행을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KIST 과학자들은 그 시간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들도 과학자들을 만나면 정부의 주요 인물을 보호하듯 대했다. 이



때 만큼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사회에서 대접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 나라 기계공업, 화학공업, 철강공업, 제약공업 등 각종 산업 곳곳에서 황금알을 낳았다. 과학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박사의 KIST 조각하기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물론 그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최 박사가 타계하기 1년 전 기자는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최 박사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우리 나라와 같은 개도국의 과학기술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향수에 의해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 청사진과 대덕연구단지 만들어**

포항제철은 박태준 전 회장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신화 이면에는 최 박사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은 일관종합제철소를 세우기로 하고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관을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 박사는 KIST팀을 주축으로 한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세계은행에 제출해 통과되게 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1969년말 1억2천370만 달러의 차관을 받아와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포항제철 건설 때의 일이다. 최 박사는 사전에 각종 기기와 설비 가격을 조사시켜 가장 좋은 시설을 싼 값에 사올 수 있게 했으며, 우리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은퇴 기술진을 불러들여 해결하게 했다. 오늘날 포스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최 박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최 박사는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에서 만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료를 모으던 중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을 알게 됐다. 석유 값이 올라가면 원자력 발전이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우리 나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에너지 원이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이를 계기로 전기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으로 대전환한다는 원자력발전 15년 계획을 입안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고리원자력 발전소이며, 지금의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42%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 왔다. 최 박사는 1973년 학원 도시에 대한 계획을 완성했다. 연구소들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덕연구단지이다. 그가 터를 닦아 만들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 옆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어쩌면 이런 인연의 끈이 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 강직, 청렴은 타의 추종 불허

최 박사는 과학기술계의 웅만한 관직은 다 거쳤다. 공식 관직 외에도 크고 작은 감투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연구자들에게 강조하던 덕목처럼 살기 위해 수신(修身)을 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KIST 설립 당시였다. KIST 설립 자금으로 미국에서 원조 받은 1천만 달러를 최 박사가 집행했다. 연구기자재를 사들이고, 각종 시설을 하는 데 썼다. 최 박사는 그 예산을 최대한 아껴 135만 달러를 남겨 미국에 돌려주려고 미국 원조처장을 찾아갔다. 이런 일은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원조를 해주었지만 어느 관리도 어느 국가에

서도 꺾어보지 못한 것이기에 미국 원조처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청렴함을 알 수 있는 이런 일도 있다. 최 박사가 과거 치 장관 시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각료들의 뒷조사를 항상 했다. 부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최 박사네가 이용하는 세탁소도 감찰의 대상이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살펴본 박정희 대통령은 최 박사의 궁핍함을 알고 집수리 비용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 때 돈과 함께 보낸 박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KIST 최형섭 박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최 박사는 수많은 관직을 거쳤지만 한 참 잘 나갈 때가 지고 있던 재산이나 말년에 남긴 것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다. 타계 후 남긴 것은 작은 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최 박사는 1994년 '5·16민족상'을 받으면서 탔던 상금과 1997년 일본 닛케이아시아상의 상금 300만엔(약 3천만 원) 등을 KIST에 내놓았다. 최 박사의 고집은 대단했다. 대덕연구단지의 터를 한참 닦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터가 좋으니 수도 이전 부지로 내놓으라고 했다. 물론 그 터는 박 대통령이 잡아준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 박사의 고집은 박 대통령도 못 꺾었다. 그의 고집 덕에 대덕연구단지가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최 박사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살 길은 과학기술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투병 생활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같은 생각을 전파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언제나 곧은 자세로, 다 베풀며 살려고 했던 선비적 정신의 전형을 보여준 한국 과학기술계의 대부였다. 이제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의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사상과 큰 족적은 과학기술계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㉔

- ① 일본 경제신문사 주관 제2회 닛케이 아시아상을 수상한 최형섭 박사(97.5.14)
- ② 최형섭 박사 기념 전시실 내부 일부(2001.2.9)
- ③ 최형섭 박사에게 보내온 영국 대처 총리의 친서